

20세기 전후 한국과 중국 지식인의 사회진화론 수용 및 현대적 시사점 - 양계초와 신채호를 중심으로 -

이 주 강(성균관대)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양계초의 사회진화론 수용 및 상무정신의 탄생
3. 신채호의 사회진화론 수용 및 상무정신의 탄생
4. 현대적 시사점: 힘과 경쟁에서 인권과 연대로

<요약문>

서방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탈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던 19세기 중반 이후, 중국과 한국은 사상적 맥락을 같이 하는 근대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에서는 중체서용(中體西用)을 바탕으로 한 양무운동(洋務運動)이, 한국에서는 동도서기(東道西器)를 근간으로 한 개화운동(開化運動)이 전개되었다. 서양의 사상적 측면을 배제하고 기술만을 도입하는데 한계를 느낀 양국(兩國)이 각각 양무운동에서 변법자강운동으로, 동도서기의 온건개화에서 서도서기의 급진개화로 옮겨간 것 또한 그 모양새를 같이 한다. 양계초와 신채호는 동도를 서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우승열패를 자연법칙으로 인정하는 사회진화론을 수용했다. 그리고 전쟁과도 같은 국제무대에서 생존하기 위한 내부 결속을 위해 상무정신을 강조하고 민족주의를 발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은 2020년

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국가주의 및 민족주의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

<주제어> : 사회진화론, 신채호, 박은식, 양계초, 민족주의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 그 가운데 양계초와 신채호가 서양의 사회진화론을 수용하는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서방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탈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던 19세기 중반 이후, 중국과 한국은 사상적 맥락을 같이 하는 근대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에서는 중체서용(中體西用)을 바탕으로 한 양무운동(洋務運動)이, 한국에서는 동도서기(東道西器)를 근간으로 한 개화운동(開化運動)이 전개되었다. 서양의 사상적 측면을 배제하고 기술만을 도입하는데 한계를 느낀 양국(兩國)이 각각 양무운동에서 변법자강운동으로, 동도서기의 온건개화에서 서도서기의 급진개화로 옮겨간 것 또한 그 모양새를 같이 한다. 중국의 양계초와 한국의 신채호는 동도를 서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우승열패를 자연법칙으로 인정하는 사회진화론을 수용했다. 그리고 전쟁과도 같은 국제무대에서 생존하기 위한 내부 결속을 위해 상무정신을 강조하고 민족주의를 발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은 2020년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국가주의 및 민족주의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양계초의 사회진화론 수용 및 상무정신의 탄생

1840년에 일어난 아편전쟁과 1851년에 봉기한 태평천국운동을 겪은 청국(淸國)은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중국번(曾國藩, 1811-1872)과 이홍장(李鴻章, 1823-1901) 등을 앞세워 양무운동을 추진했다.¹⁾ 1861년 신유정변(辛酉政變)을 계기로 등장한 서태후 정권의 지지로 추진된 양무운동의 철학적 근간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이었다. 장지동(張之洞, 1837-1909) 등이 주도가 되어 제창한 중체서용의 통상적 개념은 “중국을 근본이자 본질로 유지한 채, 서양을 도구로 활용하려는 사유방식이다.”²⁾

그러나 양무운동은 청불전쟁(1884) 및 청일전쟁(1894) 등에서 청국이 굴욕적으로 타협하거나 패배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전쟁의 패배는 곧 양무운동의 패배로 간주되었고, 1890년대 중반 이후 서구의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 등도 함께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변법운동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³⁾ 말하자면 중체서용에서 서체서용(西體西用)으로 사상적 기반이 옮겨간 셈이다. 그리고 양무운동 이후 전개된 변법자강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던 엄복(嚴復, 1854-1921)이 생각한 서체(西體)는 다름 아닌 사회진화론이었다. 이연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회진화론은 1890년대 변법자강운동을 거치면서 대중계몽운동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무기로 작용하였다. 엄복을 비롯하여 강유위, 양계초의 변법운동은 모두 사회진화론을 그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다...양계초는 나아가 진화의 자연법칙이 인간사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강조한다. 인류의 역사는 약육강식, 우승열패의 진화원리가 실현된 것으로, 여기에서 사회진화론은 인간사회를 관통하는 법칙으로 발전한다.”⁴⁾

1) 임춘성 외, 「양무파와 유신파의 중체서용」, 『중국학보』, 한국중국학회, 2002, 175-176면

2) 중체서용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관해서는 송인재, 「근대 중국에서 중화·서화의 위상변화와 중체서용」, 『개념과 소통』, 6호,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0 참조.

3)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한울, 2007, 73면.

사회진화론은 본디 영국의 사회학자인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가 내놓은 사회이론인데, 인간사회진화의 원동력은 경쟁이며 적자생존과 우생열폐는 자연법칙과 같이 보편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사회진화론은 앞서 언급했던 엄복이 토마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라는 저서를 『천연론』(1898)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내용음으로써 중국에 처음 소개되었다.⁵⁾ 하지만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상무정신(尙武精神) 고취에 힘써 중국과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이는 다름 아닌 양계초(梁啓超, 1873-1929)이다.

양계초가 사회진화론을 토대로 자신의 이론을 가다듬기 시작한 시기는 그가 엄복의 『천연론』 초고를 정식출판 이전에 접했던 1896년이였다. 그가 변법운동 이전에 내놓은 저서인 『설군(說群)』(1896)에는 이미 약육강식과 우생열폐가 과학적 진리라는 내용이 보인다. 하지만 그는 1898년 일본 망명하여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 등 일본 사회진화론의 대가들의 글을 다수 접한 이후, 자신의 사회진화론적 경향을 훨씬 더 강화한다.⁶⁾

그런데 흥미롭게도, 강자에 속하는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내놓은 원형의 사회진화론과 그 강자에 맞서는 약자가 변용한 사회진화론에는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 강자의 사회진화론이 강자가 약자를 침탈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론이라면, 약자의 사회진화론은 약자가 강자로 발돋움하기 위한 자강(自強)의 논리체계이다.⁷⁾ 양계초는 약자의 사회진화론에 따라 중국민족이 자강(自強)을 통해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문약(文弱)한 국민성을 개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상무정신을 창조하여 전파하는데 힘썼다.

4) 이연도, 「근대 중국의 사회진화론과 양계초」, 『中國學論叢』, 65호, 한국중국문화학회, 2020, 290면.

5) 임춘성 외, 「양파와 유신파의 중체서용」, 『중국학보』, 한국중국학회, 2002, 180면

6) 박노자, 『우생열폐의 신화』, 한겨레신문사, 2005, 140면.

7) 전복희, 「사회진화론의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국에서의 기능」, 『한국정치학회보』, 27집, 한국정치학회, 1993, 405면.

상무정신을 강조하는 양계초의 입장은 그가 일본 망명 초기에 쓴 「中國魂安在乎」(1899)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가 일본에 머물 당시, 청일전쟁 승리 이후의 일본 사회는 무사도 정신을 찬양하고 이를 국혼(國魂)이라는 개념으로까지 확장하는 분위기였다. 양계초는 일본이 중국이나 한국과 달리 강대국의 지위에 오른 이유를 탐색했으며, 이를 무사도라는 상무정신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는 「中國魂安在乎」에서 일본혼(무사도)이 일본에서 버젓이 찬양받는 것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상무정신에 해당하는 중국혼을 찾아보기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기며, 병혼(兵魂)을 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혼(中國魂)을 제조하는 것이다. 중국혼이란 무엇인가? 兵魂이다. 魂이 있는 병사가 있다면 魂이 있는 국가가 된다. 대저 소위 애국심과 자애심은 곧 兵의 魂이다.(今日所最要者, 則製造中國魂也. 中國魂者何? 兵魂是也. 有有魂之兵, 斯爲有魂之國. 大所謂愛國心與自愛心者, 則兵之魂也.)

그가 중국혼을 “발굴”한 것이 아니라 “발명”했으며 그것도 “병혼”으로 제조했다는 사실은, 그가 있는 그대로의 중국정신을 드러냈다고보다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필요성에 따라 호전적 민족정신을 주조해냈을 뿐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중국인의 영혼이 본질적으로 문(文)이 아닌 무(武)라는 양계초의 주장은 그의 1904년 저작인 『중국의 무사도』라는 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는 외국인들이 “중국은 무의 민족이 아니다.”는 말에 격분하여, 이 저서에서 춘추전국시대의 무사들 70여 명의 사례를 보여 중국에도 무사도 정신이 있음을 증명한다. 니토베 이나조의 『무사도』(1899)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한 이 저서에서, 양계초는 중국이 본디 호전적 무(武)의 민족이었으나 세월에 따라 문약(文弱)해져 서구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본래의 상무정신을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⁸⁾

한편 양계초는 1902년부터 1906년까지 『신민총보(新民叢報)』에 연재했

8) 문대일, 「양계초의 상무정신과 한국근대문인의 관련양상」, 『中國語文論譯叢刊』, Vol.39, 중국어문논역학회, 2016, 96면.

던 글들을 모아 『신민설』이라는 책을 발간하는데, 이 책에는 상무정신에 대한 그의 입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개진된다. 이 저서에서 그는 중국이 위기에 처한 주요 원인이 바로 문약(文弱)에 있으며, 새로운 시대를 맞은 신민(新民)은 문약을 극복하고 상무정신(尙武精神)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문약이 바로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한 유교에서 비롯되었으며, 오랫동안 중국을 지배한 유교의 문약이 무력(武力)을 무력화(無力化)했다고 주장한다.⁹⁾ 유교가 문약을 초래해서 호전적 국혼을 쇄퇴하게 했다는 양계초의 주장은 훗날 한국의 신채호에게 수용되어 유사한 저작들을 낳게 했다.

본디 사회진화론은 우승열패와 약육강식이 보편적 자연법칙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한 사회와 민족 내에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시 말해, 부국강병이라는 단일목표 아래 전 국민을 결집시키기 위한 통합적 기능이 부족하였다.¹⁰⁾ 이 때문에 양계초는 한 민족 내에서 우승열패의 공식이 작용하는 것을 막고 중국인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상무정신이라는 국혼을 제조하고 전파했다. 결과적으로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양계초의 상무정신은 전시 상황에서 중국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했으며, 그가 제창한 중국 민족주의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¹¹⁾ 이에 대해 이해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동시대의 여느 지식인과 마찬가지로 양계초는 사회진화론을 개혁이론으로 받아들였고,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는 진화의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했다. 경쟁은 진화의 동력이며, 민족국가는 경쟁주체가 진화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였다. 그 리하여 중국의 과제는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망명정치가로서 양계초가 실제로 할 수 있었던 일은 근대적 민족국가를 이룩할 국민이 되라고 중국인 개개인들에게 호소하는 일이었다.¹²⁾

9) 양계초, 『신민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참조.

10)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한울, 2007, 32면.

11) 김윤식, 「동아시아 근대와 상무정신의 발견」, 『한국고대사탐구』, 9집,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1 참조.

12) 이해경, 「양계초 신민설」, 『철학사상』, 별책 7권, 2006, 24면.

국제경쟁을 위한 민족국가 성립에 필요한 것은 그 민족국가를 이룩할 국민이며, 그 국민은 공통된 민족정신을 지님으로써 강하게 결속해야만 했다. 그래서 양계초는 중국인들에게 민족정신을 제공하고 교육하고자 애썼다. 그런데 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양계초의 학설 속에서 문약(文弱)한 정신이 자리할 곳은 없었다. 양계초는 호전적 상무정신이 마땅히 중국의 국혼(國魂)이 되어야한다고 보았다.

상무정신을 강조한 양계초의 여러 글들은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 한국에 전해져, 당대 한국 지식계층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박은식(朴殷植, 1859-1925)과 신채호(申采浩, 1880-1936) 등은 상무정신 확립을 통한 부국강병 달성이라는 양계초의 목표에 깊은 공감하고, 영웅전기 창작 등 각종 저술활동을 통해 한국민족의 상무정신 고양에 힘썼다.¹³⁾ 다음 장에 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루어보고자 한다.

13) 문대일, 「양계초의 상무정신과 한국근대문인의 관련양상」, 『中國語文論譯叢刊』, Vol.39, 중국어문논역학회, 2016, 88-89면.

3. 신채호의 사회진화론 수용 및 상무정신의 탄생

조선의 사회진화론 수용 과정을 보면, 일본 및 미국 유학생 출신의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이 최초 수용자이며, 본격적인 전파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 가는 과정에서의 사상적 대응 운동이라 할 수 있는 1890년대 후반의 자강·독립 사상의 선두주자였던 박은식·장지연·신채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¹⁴⁾ 본 장은 그 가운데 신채호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자인 신채호는 박은식과 더불어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다양한 매체들의 논설위원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양계초의 글들을 번역하거나 간접적으로 소개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양계초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를 국가 또는 민족 간 힘을 다투는 우승열패·적자생존의 경쟁사회라고 인식한다. 그리고 그는 한국이 외세의 지배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민족정신 창조를 통해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결론했다.¹⁵⁾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양계초의 상무정신론에 공감한 신채호는 한국의 상무정신 고양을 목표로 다양한 논문 및 소설 등을 발표하게 된다.

일찍이 신채호는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한국사를 새로이 고찰하고 국수(國粹)를 보전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왜냐하면 문명개화론자들이 한민족 고유의 역사와 종교를 서구의 그것에 비추어 퇴락한 것으로 폄하했으며, 일본은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양계초의 사회진화론 영향 아래 이루어진 여러 시도 끝에, 그는 마침내 『꿈하늘』(1916)이라는 소설에서 “종교적 상무정신”으로서의 화랑정신을 제창했다. 아울러 그는 화랑의 상무정신이 묘청의 난과 김부식의 집권 등으로 인해 명맥이 끊겼다고 보았다. 양계초가 『중국의 무사도』에서 중국의 상무정신이 한대(漢代)의 유교 국교화로 인해 쇠퇴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14) 이연도, 「근대 중국의 사회진화론과 양계초」, 『中國學論叢』, 65호, 한국중국문화학회, 2020, 290면.

15) 우남숙, 「사회진화론의 동아시아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0,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1, 133면.

염두에 둔다면, 신채호의 상무정신이 양계초의 그것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¹⁶⁾

신채호가 유교의 문약과 화랑의 상무정신을 대비한 대목이 가장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논문은 『조선사연구초』(1924)에 보이는 「조선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朝鮮歷史上 一千年來 第一大事件)」이다. 그 연구물의 전체적인 논조는 『꿈하늘』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논리 구조는 더욱 세심히 다듬어졌다. 논문의 전체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결론 부분을 살펴보자.

조선의 역사가 원래 낭가(娘家)의 독립 사상과 유가(儒家)의 사대주의로 분립하여 오다가, 갑작스레 묘청이 불교도로서 낭가의 사상을 실현하려 하였다. 그러다가 그 거동이 너무 광망하여 패망하고, 드디어 사대주의의 천하가 되어, 낭가의 윤언이 등은 겨우 유가의 압박 아래에서 그 잔명을 구차히 보전하게 되었다. 그 뒤 몽고의 난을 지나매 더욱 유가의 사대주의가 득세하게 되고, 이조(李朝)는 창업을 곧 유가로 성취되매 낭가는 아주 멸망하여 버렸다.¹⁷⁾

양계초와 마찬가지로, 신채호는 문약(文弱)의 유교정신과 무강(武強)의 상무정신을 대비한 뒤에 상무정신이 유교정신에 패배했음을 상징한 묘청의 난이야말로 지난 1천 년 가운데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라고 정리한다. 다만 중국인인 양계초에게 유교는 고유사상에 속했던 반면에, 한국인인 신채호에게 유교는 외래사상에 불과했다. 그래서인지, 유교를 비판하는데 있어서 신채호의 태도는 양계초의 그것에 비해 훨씬 날카로웠다. 그에 따르면, 조선인의 민족정신에는 유교사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오직 상무적 낭가사상만이 조선인의 국혼이자 국수이며, 고유사상이 다시 조명되고 교육되어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사회진화론자인 양계초와 신채호는 국제경쟁을 위한 국내적 결속을 위해 민족정신을 만들어낼 필요를 느꼈다.

16) 박찬승, 「근대 일본·중국의 ‘武士道’론과 신채호의 ‘花郎’론」, 『충청문화연구』, 제5집,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0 참조.

17) 신채호, 「조선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 『조선사연구초』, 범우사, 1997, 172면.

이 때문에 그들은 ‘문약(文弱)의 유교’를 비판하고, 대안으로 ‘무강(武強)의 상무정신’을 제공하였다. 최형욱이 적절하게 정리한 바와 같이, “한중일 지식인들은 무엇보다 국민·국가-국민성·국가정신을 수립하고 유지하려는 소명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사회진화론→민족주의·계몽주의→국민성담론→국혼론의 사유흐름 속에서 이상적 국민성을 모색하며 특히 상무정신을 고취하고자 했고, 이때 그 표상으로서 무사도·화랑도를 수립하고자 했다.”¹⁸⁾

18) 최형욱, 「니토베 이나조·랑치차오·신채호의 무사도·화랑도 수립 비교 연구」, 『東洋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0, 93면.

4. 현대적 시사점: 힘과 경쟁에서 인권과 연대로

본 장에서는 양계초와 신채호 등 20세기 전후 한중 지식인들의 사회진화론이 지닌 논리적 모순점을 짚은 뒤, 현대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사회진화론의 원형이론에 따르면, 약자가 자강 노력을 통해 강자의 지위에 올라설 수 없다. 왜냐하면 강자와 약자간의 불평등은 처음부터 자연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약자는 자연법칙에 따라 패배해야 하기 때문이다.¹⁹⁾ 그러나 양계초는 우승열패의 국제현실을 보편타당한 자연법칙으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약자가 강자의 지위로 올라설 수 있다며 이론을 자의적으로 뒤틀었다. 박노자도 적절히 지적했듯이, 이와 같은 결과 양계초의 사회진화론적 민족주의는 ‘반제국주의적’이라기보다는 ‘제국주의 추종적’이며, 본질적으로 ‘친제국주의적’으로 변하고 말았다.²⁰⁾ 신채호의 민족주의 또한 때때로 제국주의에 대한 선망을 보였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²¹⁾

양계초와 신채호가 호전적 상무정신을 조국의 민족정신으로 자리매김했던 까닭은, 우승열패의 현실 속에서 승자로 남기 위한 강한 경쟁의식을 국민들에게 길러주기 위해서였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국제무대에서 적국에 맞서 당당하게 싸울 전사들을 양성하고자 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민족정신을 상무적 병혼(兵魂)으로 정의한 뒤, 그에 따라 호전적 신민(新民)을 빚어내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다른 시각과 전제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가령 우리는 우승열패란 보편타당한 법칙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으며, 우승열패를 전제한 경쟁 대신에 여민동락(與民同樂)을 향한 소통과 연대를 꿈꿀 수도 있다.

놀랍게도 양계초 본인이 지적 후반기에 이와 같은 학문적 전환을 시도

19)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한울, 2007, 151면.

20) 박노자, 『우승열패의 신화』, 한겨레신문사, 2005, 148-149면.

21) 신용하, 「구한말 한국민족주의와 사회진화론」, 『人文科學研究』, vol.1, 동덕여자대학교, 1995, 23-24면.

하였다. 그는 1918년에서 1920년까지 유럽을 여행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서양의 근대 문명을 다시 고찰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폐허가 되고서도 여전히 자국의 이득만을 위해 움직이는 유럽제국들을 냉철하게 지켜본 양계초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 담론인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과 이 담론을 통해서 탐욕을 채웠던 서구의 야만적인 지배자들은 그들의 문명을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었다. 약자에 대한 착취와 강자들 사이의 경쟁이 진보의 원동력이라면, 그 진보의 결과는 약자들의 혁명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멸이다.”²²⁾ 한때 중국정신을 문약하게 만든 주범이라며 유교를 비난했던 양계초는 『구유심영록(歐游心影錄)』(1920)에서 수신제가평천하와 대동(大同)을 내세우며 평화적 휴머니즘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²³⁾

한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삼균주의로 유명한 조소앙이나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등도 사회진화론에 회의를 느끼고 대안을 고민했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비폭력운동 가운데 하나인 3·1 운동이야말로 엘리트 지식인이 아닌 민중이 온몸으로 우승열패의 법칙에 저항한 살아있는 사례이다.²⁴⁾

그러면 지금까지 다룬 내용이 현대에게 주는 시사점을 간단히 짚어보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는 100여 년 전 근대전환기를 뛰어넘는 급격한 변화를 경제침체와 더불어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각국은 적자생존·각자도생을 외치며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주의·국가주의에 매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²⁵⁾

사실 그와 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 백신을 독점하고자 국제적 공조를 저버리는 국수주의의 도래에 관한 신문 기사 내

22) 「1900년대 조선, 양계초에 반하다」, 『한겨레21』, 2004년 1월 28일자 기사.

23) 백지운, 「반면교사로서의 유럽- 량치차오(梁啟超)의 『구유심영록(歐游心影錄)』에 대한 일고찰」, 『중국현대문학』 39집,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6 참조.

24) 박노자, 『우승열패의 신화』, 한겨레신문사, 2005, 408-4099면.

25) <https://news.joins.com/article/23773242>

용을 살펴보자. “백신개발에서 국제 공조를 취해야 할 제약 선진국들이 백신 선점을 위해 지분인수 경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비판의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8백만 명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가운데 무엇보다도 박애주의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백신이 선진국간의 선점 경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백신 국수주의(내셔널리즘)’을 불러오고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²⁶⁾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세계 각국들은 10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인권과 연대 대신 힘과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는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까지 흔히 관찰된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정부 통제 증가, 민주주의의 쇠퇴, 빈익빈부익부의 심화, 인권 침해 등의 이슈들은 갈수록 뒤로 밀려나고 있다. 무력은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대체되고 상무정신은 자본주의적 탐욕으로 바뀌었지만, 기저에 흐르는 우승열패의 경쟁의식은 쇠퇴하기는커녕 민초들의 무의식마저 완전히 장악해 버릴 지경이다.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잘 대처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이야말로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들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바람직한 결과물을 세계 각국과 공유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강대국들이 각자도생 및 우승열패의 신화 속에 매몰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점증하는 현실 속에서, 한중 인문학포럼에 참석한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과거의 경험을 빌어 다양한 해안을 제시한다면, 필자는 그것을 청취하여 가는 것만으로도 본 포럼에 참석한 보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듯하다. 지면과 역량의 한계 상 100년 전 청국(淸國)의 과거와 2020년 중국의 현재 상황을 유기적으로 대비하여 분석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이 자리에서 청취한 뒤 보완된 형태의 논문을 탈고할 수 있다면 더 할 수 없는 기쁨이겠다.

26)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617000816>